

조계종은 포교원 주관으로 96년부터 신도등록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신도들의 재적사찰 갖기와 조직력 확보라는 취지와는 달리 신도등록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신도등록은 사업의 존폐에 대한 재논의를 포함해 활성화대책 마련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놓였다.

조계종 신도등록 지지부진... 해법은?

본·말사 중심, 총무원 지원 따라야

■실질 신도 7만여명

‘조계종 신도등록 26만3천여 명, 교무금 납부율 13.9%.’ 이것이 조계종이 96년부터 시작한 신도등록의 7년 누계다. 이중 해가 바뀌어 갱신한 것을 포함한 2003년 3월말 현재 등록 신도는 7만여명이 전부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저조한 실적이다.

96년부터 2002년까지의 조계종 신도등록 현황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장·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육박하고, 교무금 납부율은 10%대에 머물러 있다. 신도법의 교무금 납부 의무를 따르는 조계종의 실질적인 신도는 7만여 명에 불과한 것이다. 또 남성신도의 수는 여성신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신도등록사업 시행초기인 96~97년을 제외하고는 한해 등록인원이 4만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명이라도 신도등록을 한 사찰은 조계종 전체 2,600여 사찰 가운데 1,500여 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교무금을 납부해 신도등록을 갱신하는 사찰은 700여곳으로, 실질적으로 참여의지가 있는 사찰은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지난 7년 동안 아예 신도등록을 하지 않은 사찰이 1,100여 곳에 이르고, 이를 포함해 1,900여 곳이 갱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 포교원 관계자는 “눈에 드러난 수치상으로는 신도등록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2000년 이후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감소하고 20~40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진전 없는 답보

이같은 결과는 조계종 포교원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매년 등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가세는 답보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도등록사업이 종단의 골치거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속 사찰의 참여가 미미한 데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적사찰 갖기를 통한 정기신행의 정착과 조직력 확보라는 근본 취지 실현이 이미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사찰에 한정하지 않고 신행을 하는 불교정서를 무시한

연도	등록인원(명)	교무금 납부율(%)
1996	57,237	
1997	53,377	24
1998	37,423	16
1999	35,179	17.9
2000	26,795	10.9
2001	25,705	13.9
2002	27,973	12.1
합계	263,689	13.9

교구	본사	인원	교구	본사	인원
직할	조계사	60,267	13	쌍계사	6,434
2	용주사	9,310	14	범어사	21,288
3	신흥사	3,266	15	통도사	25,963
4	팔정사	6,332	16	고운사	3,942
5	법주사	8,926	17	금산사	7,526
6	마곡사	16,580	18	백양사	4,642
7	수덕사	4,261	19	회암사	4,528
8	직지사	9,168	21	송광사	7,604
9	동화사	15,694	22	대흥사	3,111
10	은혜사	9,978	23	관음사	651
11	불국사	15,023	24	선운사	2,658
12	해인사	10,284	25	봉선사	5,855



그림 · 김영민

종책사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포교원 위상 강화돼야

이의 개선을 위해 조계종 포교원은 올 상반기중 온라인을 통한 신도등록을 실시하는 한편, 하반기중 신도등록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미비점 보완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포교원의 이같은 계획은 근본적인 원인을 망각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신도등록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계종 포교원 뿐만 아니라 총무원과 중앙종회, 교구본사가 연계,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신도등록이 부진한 원인이 단순히 포교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행정 체계상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종단의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포교 예산과 인력 확대, 신도등록현황에 따른 주지 인사고과 반영과 같은 제도의 보완 등을 통해 조계종 포교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도등록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교구본사 포교 관계자와 말사 주지, 신도회 임원에 대한 교육 강화와 신행프로그램과 연계한 신도등록 및 교무금 납부 등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박봉용 기자 bypark@buddhapia.com

등록자 26만명 ... 교무금 납부 7만명 불과 2,600여 사찰중 1명도 없는 사찰 1,100곳

채 무리하게 시행한 결과라는 것이다. 심지어 신도등록사업을 현행대로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조계종 포교원의 행정력이 교구본사와 말사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조계종이 추정하는 신도수(1천만)의 4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추진 실적에서 기인했

조계종 포교원보다 교구본사와 해당 사찰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사찰에서도 신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신도등록을 종단 차원에서 한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신도등록을 통해 신도들에게 주어진

예산·관련인원 확대 등 실질 지원 시급 포교관계자·주지·신도회 임원 교육도

다. 이에 ‘힘없는 포교원’ ‘능력없는 포교원’이라는 목소리도 불거지는 실정이다.

■의무만 지우는 신도등록

신도등록을 위한 조계종 포교원의 예산은 1억여원에 불과, 조계종이 과연 신도등록 활성화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신도등록 활성화 여부가 담당기관인

는 혜택이 전혀 없는 점도 지지부진한 결과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당초 신도등록을 하면 국립공원에 무료 입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의 일관성 없는 태도 때문에 신도들의 불만을 사는 역효과를 내기도 했다. 따라서 교무금을 내면서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현행 제도는 조계종 신도로서의 자발적 의무 이행에만 의존하는 무책임한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윤남진 참여불교재가연대 기획실장

‘이라크평화’ 견기명상 동참기

다른 사람의 평화 깨트리지 않고 조용히 ‘우리주장’ 모두 하나되기

바쁜 세상살이에서 한가롭게 걷는다는 것은 마음먹지 않고는 참으로 힘든 일이다. 더욱이 나무늘보처럼 움직이지 않게 지치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걷는다는 것은 벌서는 듯한 느낌마저 들 것이다. 이라크에서 전쟁이 터지자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의 걷기 명상을 점심시간마다 진행했다. 조계사에서 출발해 인사동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다시 조계사로 돌아오는 방식이었다. 평소의 걸음으로는 10분 정도가 채로 걸는데 앞 뒤 거리 5미터 정도 되는 데다, 아주 천천히 걸기 때문에 혼자서 걷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이른바 위빠사나 명상이나 자비명상 같은 것을 어쩌다 수행해 본 경험이 그나마 밑천이 되어서인지 걷기 명상이 어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런 걷기 명상도 사회참여의 중요한 방법인 ‘시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바닥의 느낌과 들고나오는 숨결에 마음을 모으고 눈을 땅에 뚫고 천천히 인사동으로 걸어갔다. 주위 사람들이 지나가는 느낌은 자동차처럼 빠르게 느껴졌다. 길거리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천천히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퍼포먼스’로 여기기에 충분할 것 같다. 그러나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눈치 채지 못하는 게 분명해 보였고, 그 중 한가로운 사람들이 걷기명상의 목적을 알아 채고는 눈여겨볼 따름이었다. 아마도 부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맨 앞에 서시고 그 뒤로 아난과 상수제자들을 비롯한 출가수행자들이 바루를 받쳐 들고 줄을 지어

평화롭게 걷는 모습이 얼마나 거룩했을까. 만일 그때 부처님께서 걷는 길 앞에 진창이라도 있었다면 나 또한 전쟁에 부처님께서 그러하였듯이 저절로 그 위에 몸을 얹드리지 않았을까.

사람들의 호기심어린 반응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걷기 명상을 기쁘게 마쳤다. 조계사에서 산화하고 사무실로 걸어오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쳤다. 시민사회단체는 하는 일 대부분이 강한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런 일의 성격 때문에 자기성찰과 내면의 평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못할 때에 강한 주장으로 인해 오히려 다른 이들의 평화를 깨뜨릴 수도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운동은 탤런트와 같이 유명한 시민운동가 몇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흔들림 없는 평화로움과 이해심, 관용과 배려의 마음을 지니고 서로를 돌보는 사회를 지향하기에 더욱 그렇다. 비록 걷기 명상이라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강하게 인식시키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다른 이들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고 우리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데 만족을 느꼈다. 어떤 사람들은 화끈하게 삼보일배, 오체투지, 108배 같은 방법이 좋겠다고 하지만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사람들에게 별다른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을 조용히 전달할 수 있고, 걷기 명상을 하는 사람 스스로 수행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에 하겠다.

부처님께서 주의집중을 못하는 어린 비구에게 기쁨둥이를 이고 시장을 가로질러 걸으라고 하신 일화가 생각난다. 우리 모두가 항상 기쁨둥이를 머리에 인 듯이 때때로 조심스러울 수 있다면 세상은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부처님께서 주의집중을 못하는 어린 비구에게 기쁨둥이를 이고 시장을 가로질러 걸으라고 하신 일화가 생각난다. 우리 모두가 항상 기쁨둥이를 머리에 인 듯이 때때로 조심스러울 수 있다면 세상은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참선교육 (선수행입문서)

♪ 月 — 참선은 사무나 하나 — 月 ♪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지를 갖춘 후에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이 받쳐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확철대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분명한 「참선교육」 본 교재의 재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권 참선의 목적, 종류, 자세는 물론 수행자가 택해야 할 음식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자제함이 지나쳐 세심할 정도인데, 참선 수행을 할 때, 양말을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실제적인 내용. (420쪽)



[참선의 목적(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종류(범부선,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자세(자세) 종류, 참선 전후의 운동, 호흡하는 법, 참선 시 세 부적인 요령, 참선가 음식]

2권 화두에 대한 정의와 참구법, 선사법문, 조사경책 등을 실었고, 심참 수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장애에 대한 해법을 소개. (432쪽)

[화두의 중요성, 화두의 정의, 화두 참구법, 화두의 손뭉치, 화두의 단계, 참선과 법도, 선법문 의식, 법거랑 법도, 사민주, 동념즉지 정념즉지, 임제의 법도, 선문답하는 법, 선사 법문, 조사경책, 재미있는 참선특강(참선은 아무나 하나, 평계없는 무덤은 없다, 참선과 주파수 등)]

3권 선종 발달사, 부처님 부터 현대까지 전법 받은 스님 일대기 (415쪽)

기존에 나와 있는 禪 서적과 완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①, ②, ③권이 출판되었습니다. 불교서점이나 대형서점 불교코너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 주시면 등기속달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격 1권 4만5천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禪) 날권 판매 기증 (1,500원) ●서울시 중구로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대한불교조계종 修禪會

안내 : 참선교육 60기 교육 (4월 22일 화) 오전 10시, 오후 7시 교육비 3만원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탐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탐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탐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탐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책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기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기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이영기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기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기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